

1 개요

양씨아미본풀이는 남원을 신례리 양씨 집안의 조상신에 대한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양씨아미는 신병을 앓다가 드디어 심방이 되어 본격적으로 굿을 하려고 할 때 무구를 구하러 가던 오라버니의 죽음을 알고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고 조상신으로 모셔지게 되었다.

2 내용

정의고을 예촌 양좌수집에 양씨열리와 양씨아미 오누이가 외롭게 살았다. 누이동생인 양씨아미는 일곱 살 때부터 병이 들어 열다섯이 되도록 말라갔다. 양씨아미가 열다섯 되던 해 어느날, 예촌 마을 어느 집에서 큰굿을 하는데, 시왕맞이 차례가 되니 오라버니에게 자신을 업고 굿 구경을 가줄 것을 청하였다. 양씨열리가 동생을 업고 굿하는 집안 마당으로 가서 신자리 위에 앉혀놓으니, 양씨아미가 공깃상의 떡을 먹고 싶다고 하였다. 심방은 아기씨를 보고 사주를 그려쳐 심방이 될 사람이라고 말하며 떡을 주었다. 양씨아미는 떡을 두어 입 먹더니 눈물을 흘렸다. 심방이 마음이나 풀어주자며 노래를 불러가니,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던 양씨아미가 스스로 일어나 춤추며 놀았다. 한참 춤을 추고 난 양씨아미는 오라버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양씨아미는 자신이 심방이 된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 과연 이후 하늘과 땅 일을 다 알게 되어 아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정의골 예촌 양댁이 천하거부로 사는데, 외아들이 사경에 이르자 양씨아미에게 점을 보러 갔다. 양씨아미가 굿을 하라 이르고, 직접 굿을 하려고 하였으나 굿을 할 무구와 의복이 없어 탄식하였다. 양씨열리가 심방에게 묵은 악기와 의복을 빌어다가 굿을 하고 있으면 자신이 육지로 가서 무구를 준비해 오겠다고 하였다.

양씨아미는 오라비의 말대로 심방의 악기를 빌어 굿을 하여 시왕맞이에 이르렀다. 아기씨가 점을 쳐보니, 오라버지가 수중고혼이 된 듯하였다. 아기씨는 얼른 복색을 차려 입고 무악기를 세 번 울리고, 예촌 열룬이의 혼연개 낭떠러지로 올라서더니, 동생 하나 살리려다가 오라비가 수중고혼이 되었는데 자신이 살아 무엇 하겠냐며 물속으로 뛰어들어 수중고혼이 되었다.

이리 하여 양씨아미는 예촌 땅 혼연개 아래 사는 양 씨댁으로부터 제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3 특징

안사인 심방이 전승하던 자료이다. 달리 양씨일월본풀이라고도 한다. 양씨아미는 남원읍 예촌(신례리·하례리) 양씨 집안의 조상신이다. 그런데 다른 심방들을 통해서는 예촌 양씨아미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심방이 될 운명을 타고난 여인이 심방이 되지 못하여 죽음에 이른다는 줄거리는 조상신본풀이에서 유사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4 핵심어

양씨일월본풀이, 정의고을, 양좌수, 양씨열이, 혼연개, 열룬이, 수중고혼, 떡, 공깃상, 신자리, 시왕맞이, 양씨아미

5 원전 서지사항

양씨아미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6 관련 자료